

리버데일 한의원

한 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461-4447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맥 한의원

한 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펙아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정일현(스테파노)지과

폴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임플란트(시립병원 외)
(718)426-4343, (주자은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김진상 3S 교정지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 세무 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이준승치과

Medicaid Accepted
503-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C2 EDUCATION

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573-6706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1692호

2011, 12, 11

북부 뉴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요한 1, 6-8, 19-28)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대림 제3주일

ㄹ 입당송 (필리 4,45)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대영광송 없음>

ㄹ 제1독서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1-2 7.10-11)

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2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돌려 주셨기 때문이다. 11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루카 1,46-48.49-50.53-54(◎ 이사 61,10 7))

◎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1.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니,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음에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2.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3. 그분은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ㄹ 제2독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5,16-24)

형제 여러분, 16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9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20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22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23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이사 61,1 (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ㄹ 복 음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8.19-28)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24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
 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요도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영성체송

(이사 35,4)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2/11 8시	김 철중	김 부균	방 경숙	김 미수
11시	최 일환	양 명상	양 정남	최 금연
12/18 8시	홍 명숙	김 민환	김 정옥	정 태영
11시	이 회양	송 호진	송 교식	이 종숙

복 사 : 이 제영 & 조 중훈 이 다운 & 김 현건
 봉헌자 : 최고남&최충규 가족 다음주 : 김만석&최충규 가족
 헌금봉사 : 상지의 옥좌 Pr 다음주 : 존경하울 어머니 Pr
 운전봉사 : 김 승우 다음주 : 지 회남
 본당 뱅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주님께(감사미사) : 김빅토리노 가족봉헌
 주일학교 피정 도움 주신분들(감사미사) : 교사진 봉헌
 이호식(생미사) : 황금궁전 Pr 봉헌
 우성인(생미사) : 이바오로[재웅] 가족봉헌
 이요셉[신우]가족(생미사) : 이안젤라[효순] 봉헌

김도영, 김건순(생미사) : 김요셉[만석] 가족봉헌
 김카타리나[미옥](병자미사) : 김요셉[만석]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송삼손[기준](연미사) : 함버나드[봉국] 가족봉헌
 아버지(연미사) : 이바오로[재웅] 가족봉헌
 신야고보[준우](연미사) : 송안드레아 가족봉헌
 한복돌(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한복임(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맹칠월여, 김영주(연미사) : 김말가리다 봉헌
 이치구(연) : 김요셉[만석] 가족봉헌
 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허미자 가족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성가

입당 : 임 하소서 구세주여 (성가 88)
 봉헌 : 열렬하신 주의사랑 (성가 209)
 성체 : 사랑으로 오신 주여(성가 506)
 파견 : 형제에게 베푼 것 (성가 41)

교회 소식



(1)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잊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도록 합시다.

(2) 합동 판공성사

합동 판공성사를 20일(화) 저녁7시-10시까지 여러 신부님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성사 표를 준비하시고, 아울러 신자들의 의무인 교무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탄절

- ㉠ 전야 대미사 : 24일(토) 저녁9시 에 있으며 성탄의 신비가 이 미사
 중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아기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
 축성과 크리스마스 트리점화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 세례성사 : 24일 저녁8시에 영세식이 있습니다. 대부 대모 되시는
 분은 미리 대자녀를 만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낮 미사 : 25일(주일) 낮11시에 있습니다. 미사 후 성탄파티와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 예술제가 있습니다.

(4) 성탄절 제대 꽃 봉헌

성탄 대축일 제대에 꽃을 봉헌하실 분은 제대회장 김 모니카 자매님이나 사무실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화분1개 10불)

(5)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레지오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가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6) 2차 헌금(Collection for Retird Religious)

오늘 연중 계획에 의거 2차 헌금이 있습니다.

(7) 한글학교 소식

한글학교 학부모 미팅이 오늘(주일)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8) 연말 “감사의 밤”

연말파티를 “감사의 밤” 으로 한해동안 본당을 위해 봉사한 분들과 전 신자 가족이 함께하는 밤을 회장단에서 준비 했습니다.

일시 : 31일(토) 저녁8시 성체강복과 저녁식사

대상 : 전 신자 (회비없음)

(9) 확대 사목회의

연말 확대 사목회의가 13일(수) 저녁8시 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단체장님 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10) 본당 모임

- 성탄절 전례의원 모임이 12월17일(토) 저녁7시 본당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전례부원은 꼭 참석바랍니다.
- 울프레야 월례회의가 18일(주일) 11시 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 연례회 모임이 18일(주일) 12시15분 센타 102호 에서 있습니다.
- ♥ 2012년 매일미사 1년 구독 신청료 가 \$50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945.00 대림피정 : \$ 727.00

감사헌금 : \$ 500.00 (은용경), \$100.00 (에어로빅 팀)

교 무 금 : \$ 3,040.00 교육헌금 : \$ 6,975.00

조부자(완) 김문자(완) 윤구식(완) 김신자(완) 장건성(완)
 함봉국(완) 김민환(완) 윤석철(11) 이종언(완) 김태복(완)
 박은영(완) 한경수(완) 정진웅(완) 김진두(완) 김 철(완)
 진경란(완) 김원식(완) 김충자(완) 손 숙(완) 손경섭(완)
 지창욱(완)

산타클로오스

크리스마스 하면 으레 산타클로오스가 뒤따른다. 어린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산타클로오스가 오시는 날로 더 잘 알려져 있을 지경이다. 산타클로오스는 성 니콜라오 주교님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성 니콜라오 주교님은 4세기경 터키 미라에서 태어나서서 그곳에서 주교로서 활동하신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이시다. 어린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분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니콜라이 성인께서는 남모르게 선행을 많이하신분이라고 한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그 마을에 한 가난한 사람이 딸 셋을 팔려고 하자 성인께서 금 덩어리 세 개를 창문 안으로 던져 주어서 딸들이 그 금덩어리를 결혼지참금으로해서 결혼을 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6일은 니콜라오 성인의 축일 이었는데 이제 성탄을 앞두고 당연히 축일로 지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성탄이 가까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라던가, 또는 산타클로오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대한 스트레스를 은근히 받는다.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또는 인사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어디 가서 구해야 될지? 게다가 나의 주머니 사정이 있고...이러다 보니 선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물, 너무 비싼 선물 등등으로 인해 받고나서도 기쁘지 않을 때가 많다. 니콜라오 성인께서는 받을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게 하셨다고 한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버스 안에서 손목시계를 소매치기 당했다. 그 당시 대학생에게 손목시계는 필수적이고, 소중한것이였다. 나는 돈도 없는데 손목시계를 어떻게 또 장만할까? 하면서 암담한 마음 이였었는데 친척 아저씨 한 분이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성탄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손목시계를 하나 사다주셨다. 그 때 얼마나 고맙고 기쁘던지...그 선물을 받은지 50년도 더 지났고, 아저씨도 이미 고인이 된지 40여년이나 되었는데 나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아저씨와 아저씨가 주신 손목시계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곤 한다. 그 아저씨야말로 참다운 산타클로오스였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나도 그런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정말이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부담스러운 선물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선물을 해야 될 것 같다. 선물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면 차라리 나의 마음을 전하는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것이 더 반가운 산타클로오스가 되는 길이 아닐까? 우 몽은